

책이 저를 한국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 비판’ 보단 지식인의 도리 다한 것일 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박노자 교수
 《불교유신론》· 한국적 사회진화론 다룬
 영문저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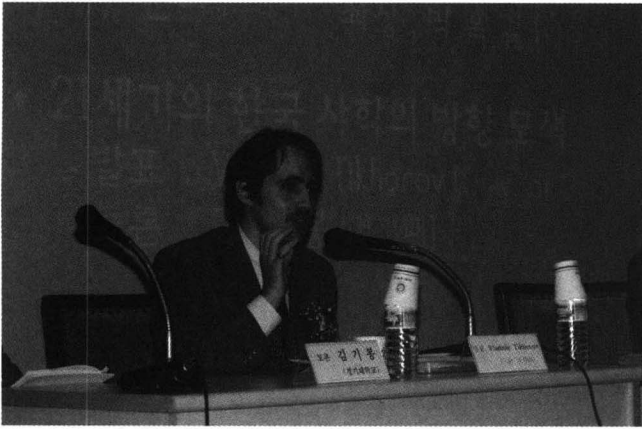
박노자는 한국인에게 특별한 시선을 보낸다. 독자와 동료들에게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알고 사랑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지식인은 박노자를 보면서, 박노자가 빠져들지 말라고 충고했던 ‘열등감’에 오히려 빠지기도 하고, 또 박노자는 그런 시선에 대한 부담스러움 때문에 일부러 더 한국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외국인이면서 한국인이고 또 한국인이면서 외국인인 박노자. 하지만 우리가 그의 두 가지 모습을 이중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진정성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 그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폭력들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역사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보여준 《나는 폭력의 세기를 고발한다》를 썼다. 대담집까지 합하면 2001년 겨울 이후 여덟 번째 책이다. 여름방학기간에 한국에 머물다 다시 노르웨이로 돌아가 개강준비로 여념이 없는 박노자와 이메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책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의 삶과 생각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박노자는 노르웨이 사회와

한국 사회를 번갈아 떠올리며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살아야 하는지 더 깊은 고뇌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 한국학 교수로 부임한 지 5년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 생활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소개해 드릴 만한 내용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곳은 회식 문화라는 것이 없다시피 하기에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지 않는 이상 거의 저녁 8~9시까지 제 방에 처박혀 컴퓨터 자판기를 두들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심심한 생활입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작업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다만 이쪽 도서관에서는 제가 필요로 하는 책이 없어도 세계 어느 도서관에서든 신속히 주문할 수 있는 도서관 협력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역시 '지식인이 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박교수 교수의 '한국사회 비판' 역시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웠던 도서들을 어렵지 않게 구해 읽어가면서 삽니다. 여기에서의 삶의 재미란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그리고 수업부담(주당 수업 6시간, 대학원생 독서지도 2시간, 상담 2시간)은 한국보다 적어 컴퓨터 자판기를 괴롭혀가면서(?) 살기에 좀더 적합하지요.

한국에서의 일상적 경험 이외에 또 다른 한국에 관한 체험이나 '한국인 되기' 노력이 있음 직할 것 같은데...

글쎄, 아마도 한국 불서 읽기나 사찰 방문, 그리고 경주나 안동, 상주, 밀양, 고령, 함안, 진주 등 유적답사 여행들이 많은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가야지역만 해도 거의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주나 공주, 부여에 대해 대단한 애착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을 떠나 노르웨이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 생각했던 것과 달라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죠. 한국에 대한 이해나 판단에 있어서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노르웨이를 이상적 사회로 표현할 순 없지만 사람들이 좀더 개인화돼 있고, 개인간의 경계선들이 조금 더 뚜렷하고, 인권의식이 훨씬 강한 쪽에서 살게 되니까,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체의 강력한 권리의식, 자기영역의식 같은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 발전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개체간의 자율적 연대가 가능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아주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 교수님의 '말' 이 한국 사회에서 미치는 파장은 다른 학자나 사회운동가의 그것과 다릅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한국 사회를 비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년 전인가 서울대에서 강연했을 때 한 학생이 저보고 "당신 만약

백인 계통의 학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 봤는가"라고 물어본 일이 있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저는 그때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저야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하려 하지 않지만 이처럼 왜곡된 세상에서, 예컨대 아프리카 아닌 유럽(물론 동구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유럽'과는 거리가 멀지만)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이미 알게 모르게 '이점'으로 기능한 게 사실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한국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밖에서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가지도록, 즉 "한국적 입장"에서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아마도 부족할 것입니다. 대체로 러시아의 경우 역사나 현실이 하도 암울해서 그런지 '지식인이 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한국 이상으로 강합니다. 저도 의도적으로 '한국 사회 비판'을 한다기보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내면화할 수밖에 없었기에 지금 한국과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회에 탐입됐으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본이나 러시아와 달리- 극우 테러 같은 일을 당한 적도 아직(?) 없고 보면, 굳이 '용기'라고 할 것까진 아니란 생각입니다.

이번 책은 대담을 묶은 것까지 하면 8권째입니다. 2001년 겨울부터니까 해마다 두 권 정도 내신 셈입니다. 그동안의 작업을 간략히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의 작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주력했던 분야는 한국 근현대사, 그 중에서도 특히 '힘'을 중심으로 한 지배 담론들인데,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학술적으로 쓴 《우승열패의 신화》를 바탕으로 한국적 사회진화론에 대한 영문 저서를 내년이나 내후년에 내려고 합니다. 또 지금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연구비를 받아 만해 스님의 《불교유신론》 등 여러 저술들을 영역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나오면 만해의 불교 개혁사상과 불교 사회주의에 대한 최초의 영문 저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유신론》의 국문번역은 있어도 만해 사상에 대한 체계적 정립이 잘 안돼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저서, 그리고 만해의 평전을 쓰려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텍스트가 세계의 사회와 문화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봉건 시대의 한국을 굳이 이상적으로 볼 생각은 없지만, 한국 전통의 인문학적 정신이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강했던 때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역시 당시로선 가장 강렬했던 1920~1930년대의 한국 공산주의 운동, '힘'의 논리를 극복한 식민지 시대의 아나키즘, 1970년대 이후의 한국의 전설적인 민주노조 운동 등은 세계인에게 크게 참고될 만하지요.

의외로 학자로서 본업(한국 고대사와 불교사)과 관련된 저술보단 한국 근대에 관심을 집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박사학위논문인 <5세기 중반부터 562년까지의 가야사 연구>를 러시아에서 단행본으로 내긴 했어요. 그리고 한국고대사 논문들을 최근까지 노어와 영어로 꾸준히 써왔습니다. 그걸 읽은 사람이 아마 전 세계 통틀어 수십 명, 많아봐야 수백 명에 불과해서 문제지요.

5년 전부터 근현대사를 '제2전공'으로 삼게 된 것은, 노르웨이에서 강의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고대사 강의는 별 수요가 없습니다. 일단 한국의 오늘날 문제—군사문화, 애국주의 이데올로기, '힘'에 대한 집착, 외국인 노동자 차별 등—의 뿌리들이 개화기나 일제에 있을 것이라는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제 전공인 역사나 불교사 등에 대해 보다 많은 글을 쓰고 싶지만 현재의 문제들에 대한 작업을 더 많이 하게 되어서 전공을 너무 등지는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느낍니다.



책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의 삶과 생각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박노자는 노르웨이 사회와 한국 사회를 번갈아 떠올리며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살아야 하는지 더 깊은 고뇌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박노자 교수를 만나러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을 찾았다. 박 교수는 이곳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다.

주장하는 내용이 '자극적' (?)이어서 독자들로부터 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독자를 평가해 주신다면,

읽은 책에서 본인의 지적 발전에 쓸 만한 부분을 꾸준히 찾아내고, 저자의 생각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을 벌이는 등 창조적인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어서 행복했어요. 제가 메일 등을 통해 볼 수 있었던 독자들의 문제의식이 대단히 예리했으며, 그게 저로서도 많은 자극이 됐죠. 예컨대 유교와 사회진화론적 이데올로기의 관계, 도덕주의적 통치 명분이 성장주의적 통치 명분으로 대체되는 과정과 유교적 지식인들이 사회진화론에 '투신'했을 때 느꼈던 고뇌 등에 대해 물어봤던 독자들이 있었는데, 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어요.

주로 한겨레신문사와 인물과사상사, 푸른역사 등을 통해 책을 내셨습니다. 한국의 출판문화를 접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출판사들이 대개 재정구조가 약하고 서구와 달리 국고보조금을 많이 못 받으니까 학술출판의 경우 늘 얇은 얼음을 밟으면서 걸어가는 듯한 위기감이 팽배하지요. 지금 한국에서 연구비 지급을 대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이 교수 개인 내지 연구자 집단에게 하지만, 출판사에 지원금을 주어서 의미 있는 시리즈를 계획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경우 출판물 유통 구조에서 '북클럽' 회원으로 가입하면 주요 출판사의 책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조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한국에서는 유통망의 중심이 역시 단순 판매업체인 듯한 느낌입니다. '북클럽' 같으면 강연이나 독자와의 만남 등을 잘 주선할 수 있어서 '독자 관리·계발'에 장점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국립도서관이 늘어나고, 국가 지원이 더 늘어나면 유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내보자는 제의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혹 어떤 제의가 있는지 그 중 작업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국 아나키즘에 대해 책을 써보자는 제안, 개화기의 주요 이데올로기적 텍스트를 옮겨 해제하자는 제안 등이 있는데, 그걸 하고 싶어도 당장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실천에 옮기기가 힘듭니다.

끝으로 한국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저의 '나', 즉 자의식은 거의 다 책에 의해서, 독서를 함으로써 만들어진 겁니다. 인문학을 알게 된 것도, 불교를 알고 믿게 된 것도, 한국을 처음 알게 된 것도 다 독서 경험이었습니니다. 제가 처음 경주에 갔을 때 《삼국유사》 등 여러 책에서 읽어낸 내용이 하도 많아서 그걸 현지에서 확인하느라 거의 하루 종일 들뜬 기분이었습니니다. 아마도 많은 독자 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갖고 계시겠지요. 인간이 책을 만들고 책이 인간을 만드는 게 우리의 기본적 '생활 순환'이잖아요. 그러기에 묵직하고 어려운, 쉽게 다가가기 힘든 책들이 그래도 만들어지고 유통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묵직한 사람이 결국 인생에 귀중한 존재가 되듯이 접근하기 어려운 책도 귀중한 책일 가능성이 크잖습니까? 그러한 책들이 멸종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요. **☞**

취재_신동섭 기자 | 사진제공_박노자